

# 지위획득모형을 통한 마이스터고 졸업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성과 분석

박경희<sup>1)</sup> · 유진영<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KEEP2)’의 4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직업경로가 유사한 특성화고 졸업생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지위획득모형 관련 논의들에서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주요 예측요인이자 학교효과와 선행요인으로 밝혀진 학교소제지, 부모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을 경향점수매칭 방식으로 통제한 후, 집단 간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객관적 이행성과와 관련하여 부모효과 및 학교소제지를 통제하여도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취업률, 선호직장 및 직업형태, 임금, 복지후생 영역에 있어 더 나은 조건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고교에서 학습한 전공과 일치된 업무에의 만족을 중심으로 시간이 경과하여도 높은 직장생활만족을 유지하였다. 또한 입직 초기에 있어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학력 일치도, 임금, 복지후생에 대한 만족이 더 높았으며, 삶의 행복 또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효과와 함께 개인특성에 해당하는 학생의 전문교과 성취가 상호작용 하면 노동시장 이행성과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전문교과 성취수준이 높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고교생활만족이 높았으며, 직장생활만족은 학생 개인 특성보다는 학교유형이 유의한 영향임을 확인하였다.

## I. 서론

마이스터고는 2010년 21개 개교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54개교가 지정되었고 현재 52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마이스터고 설립 전인 2008년 당시 인문계 선호 및 대학 진학 욕구로 인하여 고교단계에서 진학열풍이 불어왔고 결국 2007년 진학률이 취업률을 상회한 71.5%에 이르는 실정이 되었다(김성남 외, 2019). 더욱이 산업별로 필요인력들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고교단계 직업교육기관 양성 인력의 기술 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문계고의 새로운 역할 모델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 시도교육청의 획일적인 통제를 벗어나 학교가 교원인사,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 설립하는 것이었다. 또한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 설립하고 학생의 특성과 기회를 살리는 직업 분야 마이스터고 50개를 집중하여 육성하고자 했다. 이때 마이스터고의 핵

1)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 부연구위원

심적인 도입 취지는 적성과 소질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산업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줌으로써 한국의 뿌리산업육성과 기술세대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었다. 또한 안정적 취업을 통하여 경력 개발과 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마이스터고를 우수한 모델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유진영, 이미란, 2020).

개교 후 마이스터고의 성과는 마이스터고는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5년 동안 9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해왔다. 2013년에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이 확인되었다(김종우 외, 2014). 이후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최근 연구(유진영 외, 2020)에서는 첫째, 취업률 및 고용안정성 지표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과가 특성화고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이스터고 전공별 취업률은 IT·SW 분야에서 약 75%로 가장 높았다. 셋째,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인식하는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보다 높았으며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74.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넷째,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담당하는 현재 업무와 자신의 전공과의 일치도의 경우 보통을 상회하는 정도의 인식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서 고교 진학이전부터 학업성취가 높고 부모 교육수준 등의 가정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했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과 이행성과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김강호, 2017; 김난영, 2019; 김성남 외, 2016). 양정승, 김유미(2014)의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의 성과가 마이스터고 정책에 의한 순수한 학교 효과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2011년과 2013년 간 마이스터고 진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에서 부모의 학력이 상승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난영(2019)은 마이스터고의 첫 졸업생이 배출된 2013년의 취업률은 특성화고에 비해 일시적으로 취업 효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 시군구에서 나타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유사한 특성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중등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마이스터고 정책은 노동시장 이행이라는 정책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성취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특성들이 정책 성과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다만 학교교육은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로서 직업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발달해왔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교육제도 및 경험이 직업세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해서 Blau & Duncan(1967)은 ‘지위획득모형(status attainment model)’을 통해 개인의 직업지위를 결정짓는 사회적 출신배경과 이후 성취되어진 사회적 지위 사이를 조정하는 교육의 경험과 특성을 연구하였다. 직업지위획득의 영향요인은 네 가지로 보았는데,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직업, 본인의 교육, 본인의 첫 번째 직업이다. 직업지위 획득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추적·분석한 결과 개인이 받은 교육과 초기 직업경험은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계층배경보다 더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보완적 모형으로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경험되는 사회·심리적 특성들을 추가하여 좀 더 정교화된 형태의 ‘위스콘신모형(Wisconsin model)’이 Sewell, Haller & Portes(1969)에

의해 부각되었다. 위스콘신모형의 설계 변수에는 학생들의 기대, 의지와 관련된 열망(ambi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열망은 교사, 학생, 부모 등 중요한 타자들에 의해 동조되면서 학업 성취로 나타나게 된다(김두환, 2005). 이에 본 연구는 마이스터고의 학교 효과와 관련한 논의들(김강호, 2017; 김난영, 2019; 양정승, 김유미, 2014; 원지영, 2020)에서 제시된 주요 예측요인들이 위스콘신모형에 설계된 것에 주목하였다. 특히, 중요한 타자로서 부모와의 관계적 동조에 의해 선택(호응)한 마이스터고에서 그러한 고교 선택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태도, 성취적 규범 수행 등과 연관될 것으로 보았다.

이후 직업지위획득의 결정요인은 Blau & Duncan의 주장과 위스콘신모형이 강조하는 학생의 교육경험 및 특성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의 강력한 영향력을 실증한 연구들이 다수 논의되어왔다(Jencks, 1979). 유사한 관점으로 Beicht & Mona(2015)는 부모의 교육과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학교에서 직업훈련으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배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정 배경이 높은 계층의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능력과 동기부여를 얻게 되며(Becker 2009), 낮은 계층의 학생들이 직업훈련 과정으로 이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원지영(2020)의 연구에서는 직업·진로교육 경험이 성인기 초기의 취업 여부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학력은 청년 자녀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희진(2012), 오유진, 김교성(2019)은 가구소득이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는데, 특히 고소득가구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교육과 직업지위를 다룬 이상의 논의의 변화들을 종합하여 마이스터고 정책의 성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논의되어 특성들을 통제된 후에도 마이스터고의 학교 효과로서 노동시장 이행성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행패턴이 유사한 특성화고 졸업생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지위획득모형 및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주요 예측요인들을 동질하게 매칭한 후 객관적, 주관적 차원에서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비교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2, KEEP2)’의 1차년도(2016년)부터 4차년도(2020년)까지 4개년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KEEP2는 2016년 조사시점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종단 데이터를 구축해왔으며<sup>3)</sup>, 4차년도 조사시점에는 패널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

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KEEP2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는 노동시장 이행성과 및 영향을 입직 후 2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중 본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일반계고 및 자율고를 제외하고, 특수목적고 중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에 한해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주된 일자리 유형이 임금근로자인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이 마이스터고 졸업생 741명(31.6%), 특성화고 졸업생 1,603명(68.4%)으로 총 2,344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1> 연구대상**

		(n=2,344)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501	64.0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1,413	65.6
	여성	843	36.0		대졸	696	32.3
고등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741	31.6		대학원이상	46	2.1
	특성화고	1,603	68.4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이하	1,621	69.2
학교 소재지	서울특별시	261	11.1		대졸	684	29.2
	부산광역시	179	7.6		대학원이상	39	1.7
	대구광역시	126	5.4	가구 월소득	100만원미만	14	0.6
	인천광역시	162	6.9		100-200만원	179	7.6
	광주광역시	73	3.1		200-300만원	333	14.2
	대전광역시	92	3.9		300-400만원	490	20.9
	울산광역시	123	5.2		400-500만원	482	20.6
	경기도	341	14.5		500-600만원	390	16.6
	강원도	64	2.7		600-700만원	200	8.5
	충청도	271	11.6		700-800만원	104	4.4
	전라도	303	12.9		800-900만원	52	2.2
	경상도	319	13.6		900-1,000만원	20	0.9
	제주도	30	1.3	1,000만원이상	80	3.4	

\* 아버지 교육수준 결측치 189명은 제외함.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표 2>와 같이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영향요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특성 및 고등학교 재학 중 개인 특성과, 결과변수에 해당하는 노동시장 이행성과 관련 변수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4차 KEEP2 데이터의 38개 변수를 투입하였다.

3) KEEP2를 활용한 마이스터고 정책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마이스터고 졸업생 추적조사』(김성남 외, 2016; 김성남 외, 2019),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 분석』(김성남 외, 2016), 2020년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사업 3 중에 마이스터고 졸업생 추적조사 관련(유진영 외, 2020) 연구 등이 있다.

〈표 2〉 분석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특성	데이터	
고등학교 특성	학교유형	마이스터고=1, 특성화고=2	1차	
	학교소재지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 (서울특별시=1, 제주도=17)	1차	
영 향 요 인	아버지 교육수준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2~3년제대졸=5, 4~6년제대졸=6, 대학원졸(석사)=7, 대학원졸(박사)=8	1차	
	어머니 교육수준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2~3년제대졸=5, 4~6년제대졸=6, 대학원졸(석사)=7, 대학원졸(박사)=8	1차	
	고등학교 재학 중 가구 월소득	부모의 월평균 근로소득의 로그값	1차	
	고등학교 재학 중 개인특성	전문교과 이해도 (전혀 그렇지 않음=1, 매우 그러함=5)	1~2차	
		전문교과 참여도 (전혀 그렇지 않음=1, 매우 그러함=5)	1~2차	
		현재 취업상태	취업=1, 미취업=2	4차
결 과 변 수	직장규모	직장의 전체 종업원수 (1~4명=1, 1,000명이상=10)	4차	
	일자리형태	상용직=1, 임시직=2, 일용직=3	4차	
	근무형태	정규직(풀타임)=1, 정규직(파트타임)=2, 비정규직(풀타임)=3, 비정규직(파트타임)=4	4차	
	월평균 급여	임금근로의 월평균 급여 로그값	4차	
	근로계약기간	1개월미만=1, 1개월이상~1년미만=2, 1년이상~2년미만=3, 2년이상~3년미만=4, 3년이상=5	4차	
	계약만료 후 상황	재계약=1, 무기계약=2, 계약되지않음=3, 유동적=4	4차	
	노동시장 이행성과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1, 전일제=2	4차
		근무일수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의 로그값	4차
		근무시간	일주일 총 근무시간의 로그값	4차
		복지후생 관련	퇴직금,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유급휴가, 기업연금, 국민연금등,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예=1, 아니오=2)	4차
		주관적 노동시장 이행성과 관련	전공일치도, 학력일치도, 업무만족도, 임금만족도, 복지후생만족도, 근무시간만족도, 근무환경만족도, 안정성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음=1, 매우 그러함=5)	3~4차
		삶 만족도	전반적인 고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음=1, 매우 그러함=5)	1~4차
		삶 행복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행복도 (전혀 행복하지 않음=0, 매우 행복함=10)	1~4차

## 2. 분석방법

이 연구는 마이스터고 졸업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특성과 재학 중 개인 특성이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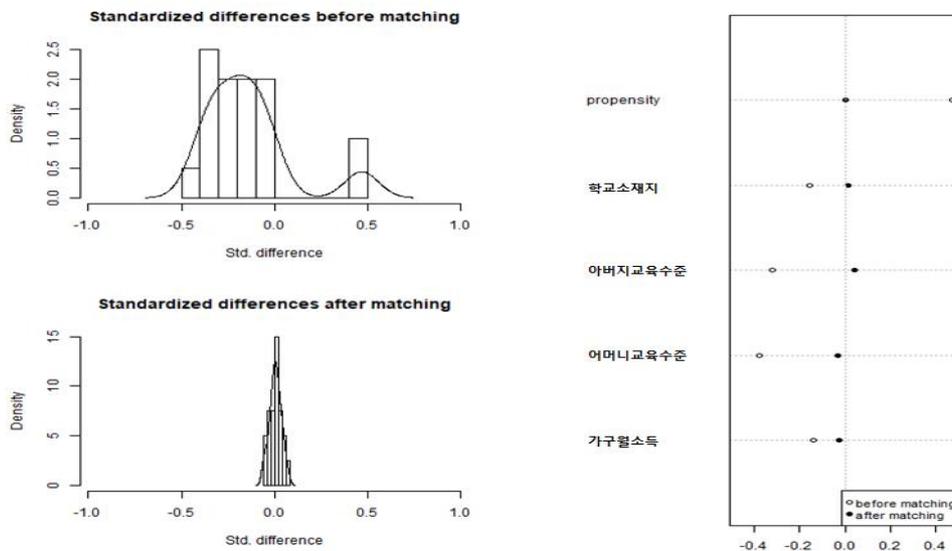
먼저 마이스터고 졸업생과 비교집단인 특성화고 졸업생의 고등학교 소재지,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등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향점수매칭은 연구대상 집단과 비교 집단의 선택 편의를 통제하여 순수한 인과적 효과의 설득력을 충족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비슷한 경향을 갖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다(Felix, 2012). 우선 마이스터고 학교효과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학교효과 외에 예측요인으로 논의된 두 집단의 주요 특성들을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학교 소재지, 아버지와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소득에 대해 경향점수(0~1)로 매칭 후 균형(multivariate imbalance)을 확인하고 공변인에 대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경향점수매칭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학교유형이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해당하는 결과변수들이 객관적, 주관적 이행성과를 비롯하여 노동시장 이행성과 영향 등으로 다양하고, 동시에 각 결과변수 간 상관성이 높음을 감안하여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다변량분산분석은 단일변량분산분석(ANOVA)에서 밝힐 수 없는 결과변수가 결합된 차이를 도출할 수 있는데, 실제 집단 간 차이가 없으나 반복적인 차이검증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1종 오류를 줄일 수 있다(Carey, 1998). 또한 다변량 분산분석은 여러 결과변수 간의 결합점수를 통해 중요도를 밝힐 수 있어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면서 구체적으로 비교 검증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영향요인은 학교 특성요인과, 학교 특성과 개인 특성이 상호작용된 요인 등 2가지 요인을 활용하였다. 단일 요인으로서 학교 특성은 Blau & Duncan(1967)의 지위획득모형에서 강조한 교육경험과 관련된다. 그리고 개인 특성은 위스콘신모형(Sewell, Haller & Portes, 1969)에서 가정한 성취적 학업수행과 관련한 요인으로서 취업을 위해 편성된 전문교과에 대한 성취를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전문교과 이해도와 참여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노동시장 이행성과 예측요인의 경향점수매칭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논의되어 온 학교 소재지, 부모 교육수준, 가구소득이 실험집단인 마이스터고 졸업생과 비교집단인 특성화고 졸업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4개 특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부모 교육수준 및 가구 월소득이 특성화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향점수를 산출하여 두 집단의 각 특성들이 동일한 분포를 갖도록 조정하였다. 매칭 후 균형은 [그림 1]과 같이 0에 가까워졌으며, <표 3>과 같이 4개 특성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두 집단이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에 대한 동질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경향점수분포 그래프

〈표 3〉 노동시장 이행성과 예측요인에 대한 경향점수매칭

구분	매칭 전 (n=2,344)				매칭 후 (n=1,166)				
	마이 스터고 (n=741)	특성 화고 (n=1,603)	평균 차이	t값	마이 스터고 (n=694)	특성 화고 (n=472)	평균 차이	t값	
학교 소재지 (%)	서울특별시	5.5	13.7	0.753	3.694***	5.3	8.9	0.096	0.244
	부산광역시	8.4	7.3			8.6	8.5		
	대구광역시	6.3	4.9			6.2	4.9		
	인천광역시	4.9	7.9			4.5	6.8		
	광주광역시	2.8	3.2			2.6	2.8		
	대전광역시	7.1	2.5			6.6	3.4		
	울산광역시	10.4	2.9			10.1	5.1		
	경기도	5.9	18.5			6.2	11.7		
	강원도	3.8	2.2			4.0	3.2		
	충청도	13.5	10.7			13.8	12.7		
	전라도	15.2	11.9			15.6	15.7		
	경상도	16.2	12.4			16.4	15.1		
	제주도	0.0	1.9			0.0	1.5		
아버지 교육수준 (%)	고졸이하	57.6	69.3	0.251	5.393***	57.6	63.1	0.143	1.873
	대졸	39.5	28.9			39.5	35.2		
	대학원이상	2.9	1.8			2.9	1.7		
어머니 교육수준 (%)	고졸이하	59.2	73.7	0.380	8.560***	58.4	64.6	0.073	0.083
	대졸	38.5	24.9			39.2	34.1		
	대학원이상	2.3	1.4			2.4	1.3		
가구 월소득 (만원)	471.5	427.8	43.739	3.096**	479.3	469.5	9.738	0.614	

\* 아버지 교육수준 결측치가 포함되어 매칭됨.

\*\*  $p < .01$ , \*\*\*  $p < .001$

## 2. 객관적 노동시장 이행성과

먼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고등학교 소재지, 부모 교육수준 및 소득 등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예측요인을 경향점수매칭으로 통제된 후, 객관적 이행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특성화고 졸업생에 비해 객관적 노동시장 이행성과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과 연관된 현재 취업상태( $t = -4.269$ ,  $p < .001$ )를 비롯하여 선호직장의 기준이 되는 직장규모( $t = 7.685$ ,  $p < .001$ ), 선호직업요건에 해당하는 일자리형태( $t = -3.906$ ,  $p < .001$ ) 및 근무형태( $t = -4.713$ ,  $p < .001$ )에 있어 더 나은 조건을 획득하였다. 월평균 급여는 마이스터 졸업생이 특성화고 졸업생보다 높으며( $t = 5.050$ ,  $p < .001$ ), 근로형태 및 복지후생에 있어

서도 대체로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는 마이스터 졸업생이 일주일 평균 5.13일, 42.13시간으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상용직, 정규직 근무형태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 경향점수매칭 후 객관적 노동시장 이행성과 비교

구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재 취업상태 (1=예)	1.47	0.50	1.65	0.47	-4.269***
직장규모	7.35	2.76	4.76	3.10	7.685***
일자리형태 (1=상용직)	1.09	0.28	1.24	0.49	-3.906***
근무형태 (1=정규직)	1.28	0.72	1.72	1.12	-4.713***
월평균 급여	224.73	57.53	184.63	55.25	5.050***
근로계약기간	3.07	0.88	2.98	1.11	0.276
계약만료 후 상황 (1=재계약)	1.33	0.61	2.13	1.34	-3.975***
근로시간 형태 (1=시간제)	1.94	0.24	1.76	0.42	5.323***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5.13	0.57	4.91	0.89	2.106*
일주일 총 근무시간	42.13	10.05	38.20	14.39	3.053**
퇴직금 수혜여부 (1=예)	1.13	0.33	1.21	0.41	-2.066*
상여금 수혜여부 (1=예)	1.20	0.40	1.42	0.49	-4.479***
초과근로수당 수혜여부 (1=예)	1.23	0.42	1.41	0.49	-3.506**
유급휴가 수혜여부 (1=예)	1.23	0.42	1.49	0.50	-5.068***
기업연금 수혜여부 (1=예)	1.71	0.45	1.88	0.32	-3.103**
국민연금등 가입여부 (1=예)	1.11	0.31	1.25	0.43	-3.373**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1=예)	1.06	0.24	1.17	0.37	-3.471**
고용보험 가입여부 (1=예)	1.10	0.30	1.17	0.37	-1.888
산재보험 가입여부 (1=예)	1.09	0.28	1.18	0.38	-2.587*

\*  $\alpha.05$ , \*\*  $\alpha.01$ , \*\*\*  $\alpha.001$

### 3. 주관적 노동시장 이행성과

다음으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주관적 노동시장 이행성과로서 직장만족의 세부 영역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특성과 근무환경과의 일치도를 비롯하여 업무, 환경, 근무시간, 임금, 복지후생, 안정성에 대한 만족은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몰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조직적 요소로 논의되어왔다(김성남 외, 2019; 오유진, 김교성, 2019).

먼저 고교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고교유형과 전문교과 성취수준의 상호작용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문교과 성취수준은 Sewell, Haller & Portes(1969)의 위스콘신모형에서 강조한 성취적 학업 수행 경험에 착안하여 설계된 변수로, 개별 학생의 학업성취가 학교유형이라는 외부환경 특성과 연계되어 장래 직업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고교유형에 따른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간 이행성과 차이는 초기 전공 일치도(F=6.202, p<.01), 학력 일치도(F=7.062, p<.01), 업무(F=8.718, p<.01), 임금(F=8.811, p<.01), 복지후생(F=4.791, p<.05)에 있어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영역들의 만족은 전공 일치도(F=9.936, p<.01)에 한해 2년차까지 유의하게 높았고, 나머지 만족도는 2년차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유형 학교특성에 전문교과 성취가 상호작용 되면,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입직 후 근무시간(F=2.022, p<.01), 근무환경(F=1.749, p<.05), 안정성(F=1.746, p<.05)에 대한 만족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임금과 복지후생 만족은 차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만족의 세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임금근로자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형성된 업무에 대한 만족이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으며, 임금 및 복지후생에 대한 만족은 입직 초기에 높게 나타났다.

〈표 5〉 경향점수매칭 후 주관적 노동시장 이행성과 세부

구분	기술통계				MANOVA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고교유형	고교유형× 전문교과성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값(Pillai's Trace)	F값(Pillai's Trace)
(3차) 전공 일치도	3.59	0.89	3.23	1.00	6.202**	3.126***
(4차) 전공 일치도	3.68	0.88	3.26	0.93	9.936**	2.466***
(3차) 학력 일치도	2.75	0.48	2.97	0.57	7.062**	1.595*
(4차) 학력 일치도	3.09	0.67	3.04	0.61	0.264	0.863
(3차) 업무 만족도	3.82	0.66	3.49	0.80	8.718**	1.659*
(4차) 업무 만족도	3.45	0.78	3.42	0.75	0.046	1.372
(3차) 임금 만족도	3.73	0.77	3.34	0.95	8.811**	1.083
(4차) 임금 만족도	3.43	0.83	3.23	0.88	2.609	1.109
(3차) 복지후생 만족도	3.64	0.88	3.34	0.98	4.791*	1.399
(4차) 복지후생 만족도	3.41	0.95	3.29	0.91	0.844	1.029
(3차) 근무시간 만족도	3.84	0.85	3.70	0.92	1.153	2.022**
(4차) 근무시간 만족도	3.70	0.91	3.60	0.82	0.685	1.299
(3차) 근무환경 만족도	3.73	0.65	3.74	0.79	0.001	1.411
(4차) 근무환경 만족도	3.63	0.80	3.60	0.81	0.036	1.749*
(3차) 안정성 만족도	3.75	0.84	3.60	0.86	1.419	1.746*
(4차) 안정성 만족도	3.66	0.90	3.56	0.81	0.774	1.263

\* 고교유형 모형의 유의성 검정 : Pillai's Trace=0.129, F(20,380)=2.820, p=0.000

\* 고교유형×전문교과성취 모형의 유의성 검정 : Pillai's Trace=1.434, F(464, 5584)=1.185, p=0.005

\* 전문교과 성취=전문교과 이해도와 참여도의 평균치

\* \*p<.05, \*\*p<.01, \*\*\*p<.001

#### 4.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영향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교육성과 및 취업성과의 영향으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취업 후 직장에 대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비교하였다.

세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교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과 행복은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특성화고에 비해 초기 직장생활만족(F=10.154, 6.345)은 유의하게 높았으나, 고교생활만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삶의 행복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시기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및 초기 직장생활에서 마이스터 졸업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7.118, 6.713, 6.034).

다음으로 고교유형과 전문교과 성취의 상호작용 경우에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고교생활만족(F=3.392, 2.108)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전문교과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에 따라 고교생활만족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6〉 경향점수매칭 후 삶의 만족과 행복 비교

구분	기술통계				MANOVA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고교유형	고교유형× 전문교과성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값(Wilk's Lambda)	F값(Pillai's Trace)
(1차) 고교생활만족도	3.85	0.87	3.73	0.77	1.000	3.392***
(2차) 고교생활만족도	3.92	0.71	3.87	0.73	0.275	2.108**
(3차) 직장생활만족도	3.90	0.53	3.56	0.74	10.154**	1.756**
(4차) 직장생활만족도	3.73	0.66	3.45	0.76	6.345*	1.798**
(1차) 삶 행복도	8.50	1.59	7.72	2.01	7.118**	2.304***
(2차) 삶 행복도	8.21	1.77	7.90	2.03	1.117	1.326
(3차) 삶 행복도	8.21	1.60	7.53	1.77	6.713**	1.490*
(4차) 삶 행복도	8.17	1.64	7.53	1.76	6.034*	1.601*

\* 고교유형 모형의 유의성 검정 : Wilk's Lambda=0.956, F(8, 372)=2.125, p=0.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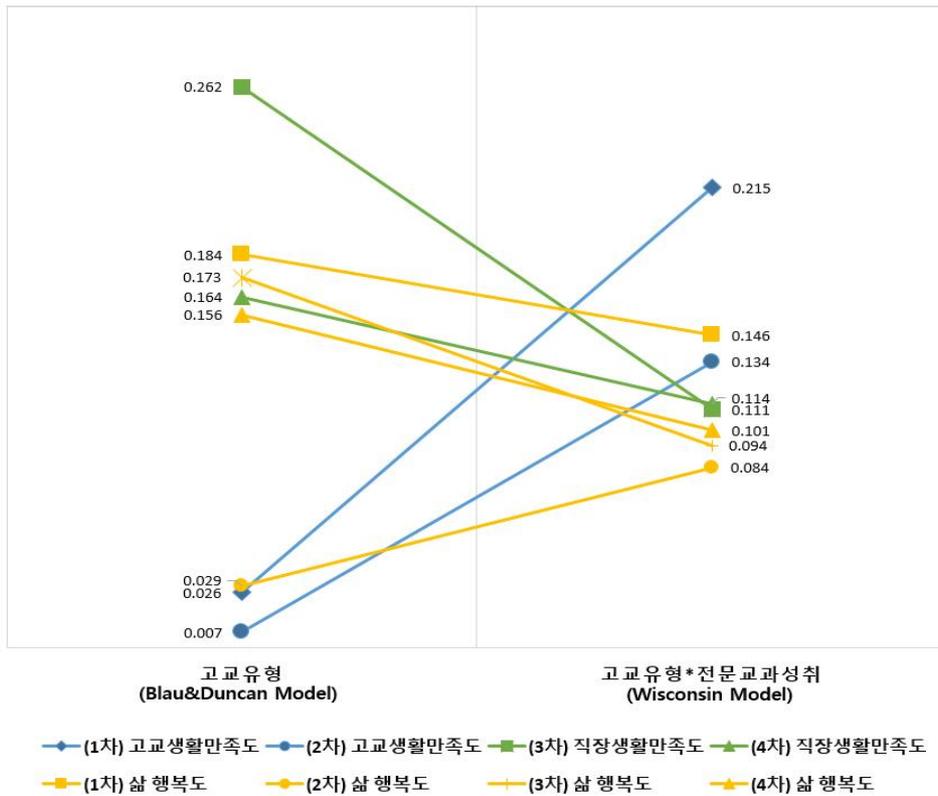
\* 고교유형×전문교과성취 모형의 유의성 검정 : Pillai's Trace=0.915, F(232, 2800)=1.558, p=0.000

\* 전문교과 성취=전문교과 이해도와 참여도의 평균치

\* \*p<.05, \*\*p<.01, \*\*\*p<.001

〈표 6〉에서 제시된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영향으로서 삶의 만족과 행복에 대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집단 간 차이를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고교유형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로 나타난 취업직후 직장생활만족은 고교유형에 전문교과 성취수준이 상호작용 되었을 때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고교유형에 전문교과 성취가 상호작용 되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고교생활만족은 상대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가장 큰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고교생활만족은 학생

개인의 교육경험 및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해, 직장생활만족은 학생 개인 성취보다는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6> MANOVA F값의 고정총합 가중치를 도표로 제시

[그림 2] 지위획득모형에 따른 삶의 만족과 행복 비교

#### IV. 결론

이 연구는 마이스터고의 학교 효과로서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행패턴이 유사한 특성화고 졸업생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지위획득모형 및 선행연구에서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논의되어 온 특성들을 두 집단 간에 동질하게 매칭한 후 객관적, 주관적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교육성과 및 취업성과의 영향으로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최근 선행연구 결과 및 가정들(김강호, 2017; 김난영, 2019; 오유진, 김교성, 2019; 원지영, 2020)과 달리 마이스터고의 학교 효과는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주요 예측요인으로서 부모 효과 및 학교 소재지를 통제하여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

음을 실증하였다. 이전의 다수 연구들에서는 중등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비해 취업률 등에서 긍정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김성남 외, 2016; 김종우 외, 2014; 유진영 외, 2020),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특성화고에 비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주장도 존재한다(김강호, 2017; 김난영, 2019; 양정승, 김유미, 2014).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주요 예측요인을 통제하는 방법을 시도하였고, 고등학교에서 경험한 직업교육 및 학습활동이 노동시장 이행성과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특히, 마이스터고 학생의 중등교육 경험은 취업률, 임금, 복지후생 등에 있어 대체로 높은 수준의 객관적 이행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특성 및 직장여건에 대한 주관적 이행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객관적 이행성과에 비해 부분적인 마이스터고 학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전공 일치도는 지속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학교에서의 교육경험과 직장에서의 직무일치에 대한 만족이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전공 일치는 직업만족 및 직업이동에 핵심적 영향요인으로 논의되어 왔으며(Peters & Kostas, 2020), 과잉교육과 함께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때문에 국가마다 전공 일치도를 높이고 과잉교육을 해소하려는 제도적, 학문적 노력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련하여 Green & Zhu(2010)는 과잉교육 자체가 직업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 불일치와 결합되었을 때 직업만족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한국에 비해 직업불일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보고되는 스웨덴, 미국 등의 국가조차도 전공 불일치 현상은 중요한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세부적으로 대졸 근로자 중 20% 정도가 전공 불일치가 있으며, 임금 패널티를 경험하고 있다(Nordin, Persson, & Rooth, 2010; OECD, 2017).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전공 일치가 직업만족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이스터고 중등 직업교육 정책이 지속적인 전공 일치도를 실현하여 마이스터 졸업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마이스터고의 학교 효과에 고등학교에서의 개인 성취가 상호작용 하면 노동시장 이행 성과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마이스터고 학생 중 전문교과 성취가 높을수록 전공 일치도를 비롯하여 노동시장 이행성과의 영향으로서 삶의 만족과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고교유형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문교과 성취가 상호작용 하면 마이스터고 학생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이는 고교생활만족의 차이는 학생 개인 특성의 영향이 크게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가정한 위스콘신모형을 실증한 결과로서 마이스터고 정책은 Sewell, Haller & Portes(1969)의 지위획득이론의 가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이스터고를 선택한 과정은 학생의 중요한 타자로서 부모와의 동조와 호응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고교 선택은 마이스터고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와 학업성취에 연관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직장생활만족과 행복은 입직 초기 시점인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마이스터고의 학교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직장만족의 상쇄는 주관적 인식으로서 변화되는 직장인들의 전체적인 특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생애의 초기 단계를 지나면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개인적 차원에서의 욕구의 성장, 개인 간 이질적인 노동시장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직업준비교육의 영향력은 상쇄하게 된다(이병희, 2002).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근무여건이 높은 수준인 것과 그에 대한 주관적 만족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특질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직업교육 정책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긍정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갖고, 그에 따른 정책의 성과로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은 각 이행단계에서 확인되는 성과 이상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오유진, 김교성, 2019; Peters & Kostas, 2020). 특히, 본 연구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주요 노동시장 이행성과로 밝혀진 전공 일치도의 경우, 과잉교육을 발생시키는 고용주의 선호를 비롯하여 과도한 교육열 및 고등교육의 대중화 등의 사회적 이슈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여건과 직장문화를 극복하고 중등 직업교육이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정책 비전보다는, 성공적인 직업활동을 기대하는 중등 직업교육생을 위해 전공 일치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 구상에 집중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전술한 전공 일치도는 본 연구와 같이 강력한 노동시장 이행성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일치도에 비해 국내외를 막론하여 학문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보유 자격 유형, 특정 직무에서 요구되는 자격 유형 등의 데이터가 구성되었을 때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KEEP 데이터와 대표성을 갖는 직장 사례 데이터가 결합된 전공 일치도의 영향요인 및 성과에 관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 ❖ 참고문헌 ❖

- 김강호(2017). 마이스터고 교육의 취업효과: 특성화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연구*, 20(2), 1-23.
- 김난영(2019).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정부 사업 평가: 마이스터고지원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3), 141-167.
- 김두환(2005). 교육목표의 관계적 동조와 학업성취 - 지위획득 연구의 새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15(1), 43-64.
- 김성남 외(2016). 마이스터고 졸업생 추적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성남 외(2019). 2019년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사업 (1)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종우, 최수정, 김정인(2014).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성과 분석: 직무만족도와 학력·스킬불일치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3(5), 133-156.
- 노혜진(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 신현욱(2009). 직업지위 획득 과정에 있어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비교연구, *직업재활연구*, 19(1), 143-166
- 양정승, 김유미(2014). 마이스터고 정책의 초기 노동시장 효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75-99.
- 오유진, 김교성(2019).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연구*, 29(3), 1-35.
- 원지영(2020). 사회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부의 학력과 직업 진로교육이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적질연구*, 12, 1-27.
- 유진영, 이미란(2020). 세대교육으로서 기술교육의 지속성 고찰: 한국형 마이스터고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25(3), 59-78.
- 유진영 외(2020). 2020년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사업: 3.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희(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1-18.
- Becker, Rolf(2009). Entstehung und -Reproduktion dauerhafter Bildungsungleichheiten. In: Becker, Rolf (Hrsg.): *Lehrbuch der Bildungssoziologie*. Wiesbaden.
- Beicht, Ursula, & Granato, Mona.(2015). Ausbildungsplatzsuche: Geringere Chancen fuer junge Frauen und Maenner mit Migrationshintergrund, BIBB REPORT Ausgabe 2015/10.  
<https://www.bibb.de/de/14070.php> (2021.09.03. 검색)
- Carey, G.(1998).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I. Theory*. Boston: Academic Press.
- Felix. J. T.(2012). *Propensity score matching in SPS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Library.
- Green, F., & Y. Zhu.(2010). Overqualification, job dissatisfaction and increasing dispersion in the returns to graduate education, *Oxford Economic Papers*, 62(4), 740-763.
- Jencks, C, et al.(1979). *Who gets ahea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uccess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Kim, D. H. & Schneider, B.(2005). Social capital in action: Alignment of parental support in adolescents' transition to postsecondary education, *Social Forces*, 84(2), 1181-1206.

- Nordin, M., Persson, I. & Rooth, D. O.(2010). Education-occupation mismatch: Is there an income penalty?,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9(6), 1047-1059.
- OECD(2017). Getting skills right: The OECD skills for jobs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Peters, J. S., & Kostas, M.(2020). Overeducation, skill mismatches, and labor market outcomes for college graduates. IZA World of Labor. <https://wol.iza.org> (2021.09.03. 검색)
- Sewell, W. H., Haller, A. O. & Portes, A.(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82-92.

## ❖ Abstract ❖

### A Labor Market Performance for Meister High School Graduates using the Status Acquisition Model

Park Kyunghee, Yu Jin-Young

This study aimed to demonstrat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wage workers graduating from Meister High School (MHS) by using the four-year data of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II’.

Base on this, graduate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with similar vocational paths were set as comparative group, and school location, parents’ education level, and family income, which were identified as main predictors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were controlled and analyzed.

As a main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MHS graduates obtain better objective performance conditions in employment rate, preferred job, monthly income, and welfare even if the school and parent effects are controlled between two groups. Second, MHS graduates continuously maintained higher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their horizontal mismatch. In addition, in the early employment period, MHS graduate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vertical mismatch, wages, and welfare benefits, and their happiness in life was also higher. Third, regarding the individual's academic achievement emphasized by the Wisconsin status acquisition model, MHS graduates with higher levels of achievement in specialized courses were significantly satisfied with their high school life.